

광주·전남 경찰공무원 간부화 현상 심화

경감 근속승진 갈수록 늘어 '인사적체' 심각 전망 경찰 1인당 담당인원 줄고 5대 범죄 검거율은 증가

오늘 경찰의날 '지역치안체계 현주소는'

광주·전남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근속승진으로 인해 조직 간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광주 3천568명(3천677명), 전남 5천618명(5천50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 정·현원은 치안감 1명(1명), 경무관 4명(3명), 총경 17명(18명),

경정 100명(116명), 경감 263명(502명), 경위 395명(1천747명), 경사 749명(572명), 경감 862명(420명), 순경 1천177명(298명) 등이다.

전남 정·현원은 치안감 1명(1명), 경무관 3명(2명), 총경 34명(37명), 경정 111명(112명), 경감 497명(696명), 경위 724명(2천881명), 경사 1천239명(656명), 경장 1천423명(772명), 순경 1천586명(351명) 등이다.

문제는 경감 바로 아래 계급인 경위가 정원 대비 현원이 4배를 초과하면서 '항아리 구조'를 보이는 등 승진 유리전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경감 근속승진까지 확대되면서 추후 경감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경위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것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경찰 조직의 간부화 현상이 심화된

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 시 국가·지방일반직이 평균 각 18년·14년 걸리는데, 경찰(경감)은 평균 30여년이 걸리고 있어 승진 유리전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도 변화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난 2011년 경찰 1인당 담당 인원은 501명에서 지난해 422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515명에서 424명, 전남은 398명에서 342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치안의 주요 역할을 담

당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경찰서 5곳, 지구대 19곳, 파출소 21곳이며, 전남은 경찰서 21곳, 지구대 15곳, 파출소 191곳에 이른다.

경찰청 통계연보에서 주요 경제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사기·횡령·배임 등 지난 2011년 28만6천615건이 발생, 지난해 43만4천698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검거건수는 2011년 21만2천747건으로 74% 검거율을 보였고, 지난해 29만1천5명으로 66%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또한 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은 2011년 61만7천910건에서 2020년 46만7천547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발생 대비 검거율은 62%에서 77%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원에 40%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갈수록 경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30-40명이 승진했는데, 경감 근속승진 확대에 따라 200명 이상 승진한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늘고 있지만, 단순 범죄는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파업 3천여명 집회

'50인 이상 집회금지'...방역지침 위반 고발 방침

20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운동에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동참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불평등체제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전환 실현'을 외치며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금속, 공공운수, 건설, 보건 등 산별노조 16곳 소속 조합원 3천여명이 모였다.

10·20 광주지역 총파업 대회는 오후 2시부터 ▲사전 대회 영상 ▲개회 선언 ▲노동의례 ▲연대단위 소개 ▲주제 영

상 시청 ▲대회사 ▲서신 낭독 ▲연대사 ▲광주지역노동자 노래패 연합 문예공연 ▲투쟁사 1·2 ▲광주지역노동자 풍물패 연합 모듬북 공연 ▲정당발언 ▲폐회 및 행진 ▲산별대표자 결의발언 ▲총파업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우리의 총파업은 5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광장으로 나온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난 5년 간 한국사회의 불평등·불공정으로 기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더는 인내로만 버틸 수 없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마지막으로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등 공공성을

강화하라"며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해 공공임대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소중한 교훈인 의료와 돌봄을 돈벌이 수단인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대중교통 공공성 보장과 유통물류 산업영역에서 공공기업을 세우고 노동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강제 해산을 시도하지 않고 5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교통 상황을 통제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해 4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제증 등을 거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재원기자

교육공무직들 파업...급식·돌봄학교 차질

일부 학교 빵·우유로 급식 대체...단축 수업도

광주·전남 교육공무직원 2천여명이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급식 등 일부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체 교육공무직원 4천333명 중 11.2%인 480여명이 이날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체 학교 253개교 중 40개교가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돌봄교실 운영학교 149개교 중 10여개교가 이날 운영되지 않았다.

전남의 경우 전체 교육공무직원 8천912명 중 17.6%인 1천570명이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했다.

도내 전체 학교 864개교 중 174개교가 급식이 중단돼 빵·우유 등으로 급식이 대체됐다.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돌봄교실 운영학교 629개교 중 50여개교가 이날 운영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어 대체 급식을 준비해왔고, 돌봄교실 미운영 학교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연재원기자

노후주택 공사 중 붕괴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안전 관리 소홀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 사망 사고를 낸 공사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중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대수선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는 집주인 B(54)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은 지 47년이 지난 광주 동

구 개림동 한 목조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올해 4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붕괴사고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 1명과 A씨도 부상을 당했다. /김동수기자



위안부 피해자 닛 기리는 '바라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닛 기리는 위령제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법원사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바라춤을 봉행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붕괴 참사' 관련 브로커 4명 수사 마무리

경찰, 업체·조합·시공사 대상 수사 이어갈 예정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 선정을 앞선하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 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20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붕괴 참사 현장의 업체 선정을 앞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날 주모(70)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주씨를 마지막으로 붕괴 참사 현장 계약 비위 관련 브로커 4명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들 4명 브로커는 서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업체 선정하는 대가로 재개발 현장의 철거 등 공사 업체 6곳으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브로커 4명은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문씨의 지인 이모(74)씨,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1)씨, 주씨 등 총 4명이다.

해외도피행각을 이어가다 자진 귀국해 구속된 문씨와 지인 이씨는 서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재개발 현장 공사 업체 선정을 앞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조합 이사 이씨는 공무원에 신분에서 준한 조합 임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아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가 적용됐고, 주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송치됐다.

경찰은 브로커 4명을 모두 금품수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송치했지만, 향후 금품을 준 업체와 조합·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입찰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금품을 건네고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 계약의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조합, 시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의혹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